

공공도서관을 통한 정보주권 확립방안*

박인웅** · 양재한***

〈 목 차 〉

- | | |
|---------------------------|------------------------|
| I. 서론 | V. 공공도서관을 통한 정보종속 극복방안 |
| II. 지식산업사회의 도래와
디지털도서관 | 1. 지식자원의 생산과 소비패턴의 변화 |
| III. 공공도서관의 본질구현 | 2. 종자지식자원의 확보 |
| IV. 우리나라 정보종속 현상의 원인 | 3. 일상성의 도서관 세우기 |
| 1. 역사적 측면 | VI. 정보주권 운동의 사례 |
| 2. 지식과 정보의 소비문화적 측면 | - 창원지역 마을도서관 이야기 |
| 3. 지식과 정보의 생산문화적 측면 | V. 결론 |
| | 참고문헌 |
| | Abstract |

I. 서론

국가간 정보고속도로가 일상화되어 가는 오늘날 세계는 민족국가의 범위를 넘어 초국가적 질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나름의 몫을 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나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국제기구들이 지금까지 국가단위의 중앙정부가 수행

* 이 논문은 1997년도 부산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임.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창원전문대학 문헌정보과 부교수

하던 노릇의 상당한 부분을 수행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 예술, 종교와 같은 분야에서는 인터넷과 같은 통신수단을 이용해 세계를 하나의 유기체로 묶고 있다. 그야말로 '지구제국'이 건설되고 있는 것이다. 이 지구제국에는 중심부와 주변부가 있으며, 중심부에 위치한 강대국을 중심으로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북거일은 그의 저서 '국제어 시대의 민족어'에서 지구제국 시대에는 민족주의가 우리사회를 이끄는 데 이상의 이념이 될 수 없으며, 언어에 있어서도 한국어와 함께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자는 그의 주장에는 영어가 이제 단지 앵글로색슨 민족만의 언어가 아니라 '지구제국'의 언어이며, 국제어인 영어를 쓰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가 보는 손해나 비용은 너무 커서 이대로 가다가는 다른 나라에 뒤떨어지는 게 필연이라는 것이다.¹⁾

영어 공용어 문제는 경제적 실익차원에서 만 바라볼 문제가 아니다. 지식산업사회가 도래하면서 근대 민족국가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국경의 의미는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언어를 바탕으로 한 문명단위의 민족주의는 여전히 남아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것은 언어가 한 민족의 문화적 독자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이라는 도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영어로 된 지식자원들은 서구적인 가치를 근간으로 생산된 것들이다. 따라서 민족적인 정체성을 갖지 못한 언어능력은 국적 없는 미아를 양산할 뿐이다. 그러나 세계화와 정보화는 피할 수 없는 노릇이고, 민족의 정체성도 동시에 지켜나가야 한다.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해결의 실마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언어로 기록한 기록물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들 기록물을 보관 관리하는 사회적 장치인 공공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는 우리의 삶을 기록한 기록물들을 유통관리하

1) <http://www.chosun.com/poll/980710.html> (북거일의 영어 공용어 주장에 대해 디지털조선일보에서는 그 논쟁의 길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공용어를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의 여론조사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는 공용어를 찬성하는 사람이 45%, 반대하는 사람이 55%를 차지하고 있다.)

는 시설이 매우 부실하다. 서구에서는 오랜 산업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 수백만 권의 실물장서를 확보한 도서관이 많이 설립되었고, 이 실물장서를 바탕으로 도서관의 디지털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서관은 산업화의 단계를 거쳐 정보화의 단계에 돌입하는 순차적인 과정 중에 사회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다가올 정보통신사회에서 민족지식자원을 지켜나갈 준비를 이미 갖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제식민통치 등의 역사적 사건으로, 이러한 순차적 과정을 거치지 못하여 민족지식자원을 생산하지도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산업화와 정보화를 동시에 이루어야 하는 혼란을 맞고 있다. 따라서 토착 지식자원을 확보하지 못한 부실한 바탕 위에 초고속정보도로를 구축하더라도 우리의 정보주권을 찾는 일은 불가능 할 것이다.

지구제국 시대 도래를 앞둔 1990년대 후반의 한국의 공공도서관은 어떠한 사회적 장치여야 할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식과 정보의 생산은 시장의 논리에 따라 생산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이다.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의 지식과 정보 생산구조는 시장의 논리보다는 다른 외적 요인에 의해 항상 영향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정보자료를 축적하는 과정에서도 편견과 왜곡, 허위와 조작에 의해 정보제공의 주체성을 상실해 온 게 사실이다.²⁾ 오늘날에는 인터넷이란 통신수단이 나타나 지식과 정보가 신속하게 유통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즉, 미국 등 정보선진국에서 정보후진국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디지털화 한 지식과 정보가 한쪽 방향으로 편향되게 흐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는 정보선진국과 중앙에서 생산한 디지털화 한 지식과 정보를 받아 활용하는 구조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 지식과 정보도 상품과 마찬가지로 생산과 유통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동안 우리사회는 인터넷, 초고속정보도로 등 지식과 정보의 유통에만 집착하고, 이에 바탕이 되는 생산에 소홀함으로써 선진

2)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면 된다. 김영기, "한국사회 지식흐름의 문제를 통해 본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사회사: 부산의 'P'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서관*, 제53권 제2권 (1998 여름), pp. 51-93.

국과 중앙에 정보종속을 당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지식산업사회의 기반 시설인 공공도서관의 본질구현과 우리나라 정보종속의 원인을 역사적 측면, 소비문화적 측면과 생산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나아가 초고속정보유통체제 하에서 정보선진국과 중앙에 정보종속을 당하지 않도록 그 지역사회의 공공도서관을 통한 정보주권 확립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지식산업사회의 도래와³⁾ 디지털도서관

피터 드러거(Peter F. Drucker)는 제2차세계대전 바로 직후부터 탈자본주의 사회로 이동하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그가 말하는 탈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요한 생산수단인 자본이나 천연자원 또는 노동이 더 이상 기본적인 경제적 자원(생산수단)이 아니며, 지식이 새로운 생산수단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부를 창조하는 중심적 활동은 생산적인 곳에 자본과 노동을 투입하는 것이었지만, 지식이 생산수단이 되는 지식산업사회에서의 생산성과 혁신은 지식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⁴⁾

지식산업사회가 도래하면서 지식과 정보가 국경의 장벽을 넘어 통신망을 통해 자유로이 유통되는 지구제국이 건설되고, 이러한 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의 대량생산과 소비가 가능해지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 제3공화국 정부는 경제개발5개년 계획의 하나로 서울과 부산간의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사람과 물자를 신속하게 배달하도록 하여 국가의 산업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즉, 산업사회

3) 본 연구에서는 산업사회 이후를 지칭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정보사회, 후기산업사회, 탈공업사회 등을 통칭하는 용어로 지식산업사회라고 부르고 있다.

4) Peter F. Drucker,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이재규 역,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3. p. 27-30.

에서의 대량생산과 소비는 고속도로를 통하여 대량생산과 소비가 가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지식산업사회에서는 초고속정보도로가 지식과 정보의 대량생산과 소비를 가능케 하고 있다. 개인, 가정, 기업에 지식과 정보를 신속하게 배달해 주는 통로 구실을 초고속정보도로가 하는 것이다.

IBM이 지배하던 1970년대는 누가 컴퓨터를 잘 만드느냐가 사회를 이끌어 가는 관건이었으나 PC시대가 열리면서 누가 편하고 사용하기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내는가 열쇠가 되었다. 이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PC운영체제인 도스(DOS)를 무기로 하여 전성시대를 구가하였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의 확산으로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의 전성시대도 위협을 받고 있다.

컴퓨터간 네트워크의 확산은 여기에 실을 내용이 중요한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 즉, 초고속정보도로에 담을 디지털화 한 내용이 중요시되는 사회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은 0과 1의 조합으로 표현되고, 이 0과 1의 집합체는 결국 사람이 이용하므로 인간의 이용습관에 따라 문자형태(text)로, 음성형태(audio)로, 화상형태(image)로, 또는 이들이 결합된 형태로 그 내용을 담아 특정 매체로 생산된다. 따라서 디지털 자원은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는 자본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디지털화 한 정보의 특성은 작고, 가볍고, 변형이 쉬우며, 빛의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새로운 매체로 변형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자본재의 역할도 수행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비트로 구성된 네트워크에 실린 내용물이다. 이것을 우병현은 디지털자본이라고 부르고 있다.⁵⁾ 산업사회에서는 에너지, 석유, 군사력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경쟁에서 이기는 길이었지만, 지식산업사회에서는 누가 지식자원을 많이 확보하느냐가 승패의 관건이 되는 사회가 된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정보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는가. 이제환은 사회현상적 측면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 우리사회도 이러한 정보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첫째로 우리사회도 지식과 정보가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으며, 둘째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지식과 정보의 디지털화

5) 우병현, **디지털은 자본이다 : 디지털자본시대의 정보민족주의**, 서울 : 나남출판, 1996, pp. 55-81.

와 매체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셋째 정보이용층의 정보마인드의 변화가 오고 있고, 지식과 정보요구가 다양해지는 사회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⁶⁾

그러나 우리사회는 지식과 정보자원을 디지털화하기 위한 충분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 디지털화 하고, 네트워크화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도서관의 소장물 전제로 하지 않은 채 정보기술을 통한 액세스만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정보선진국의 수백만 권의 장서를 바탕으로 디지털화 하는 현상을 보고 디지털화만 따라 가다가는 정보선진국에 종속을 면할 수 없다. 정보선진국에 정보종속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지식자원의 디지털화 이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개개 도서관에 종자 지식자원을 확충하는 일이다. 종자 지식자원을 마련함에 있어 최우선 과제는 종이를 중심으로 한 올드미디어에 담긴 지식자원을 체계적으로 확충하는 일이다. 종자 지식자원의 축적은 도로, 공항, 항만건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을 확보하는 일과 동일한 것이므로 국가에서는 이 일에 투자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지식과 정보는 민족적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리 민족이 정보선진국에 종속을 당하지 않고 주권을 확보하는 길은 우리의 토착 지식자원을 확보하는 일이 일차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한국에 관한 것을 연구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서구의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만든 D/B만을 이용한다면, 이는 아메리카 문화에 철저히 종속 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언어는 그 사회의 이념과 관습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개화기에 조선사회가 일본 및 구미열강의 제국주의 침략 앞에 놓이게 되자 개화사상가들이 구국의 길은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어, 당시 '도서관' 설립을 통한 교육구국을 주창하였던 것이다.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은 조선인 통치시설로서 '도서관'을 설립하였고, 이와는 반대로 우리나라의 선각자들은 애국계몽 운동의 차원에서 도서관 설립운동을 벌였던 것이다. 과거 개화기의 애국계몽운동을 위한 시설, 일제 때의 지배 이데올로기 정당화를 위한 사회교화시설로서의 도서관 사상은 그 당시 공공도서관의 필요성을 정당화 시켜주는 사상적

6) 이재환,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도서관의 현실성", **도서관문화**, 제39권 제3호(1998, 5·6), pp. 26-39.

배경이었다. 지구제국시대를 앞둔 오늘날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존립을 정당화 시켜주는 사상적 배경은 무엇이어야 할까. 지식산업사회에서는 디지털화 한 지식과 정보가 중요한 생산요소이다. 그러나 디지털화 한 최첨단의 방법으로 자료를 보여주는 사회가 도래한다고 해도 그 기본은 인쇄매체 등 올드 미디어의 충실한 확보여야 한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국가가 지식산업사회로 나아가는 데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반에 해당되는 정보력을 우선 갖추어야 하므로, 디지털 이전 매체인 토착지식자원의 확보를 통해 정보선진국에 정보종속을 막는 국가기 간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1990년대 후반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존립을 정당화시켜 주는 하나의 사상적 배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Ⅲ. 공공도서관의 본질구현

인류의 삶에서 평등이라는 개념은 공공서비스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19세기 영·미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은 교육적으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재분배하는 사회적 평등을 보장하는 하나의 기관으로 탄생되었다. 즉, 사회의 지배계층에서 누리는 것과 동일한 시설을 노동자들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로 공공도서관이 나타난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도서관은 무료성, 공개성, 공비성의 원칙이 확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⁷⁾

1970-80년대에 들어와 새로운 정보기술이 공공도서관에 도입되면서 그동안 무료성의 원칙을 지켜오던 도서관이 상업화의 거센 물결에 도전을 받게 된다. 정보의 상업화, 사유화 현상의 가속화는 재정적 능력을 가진 자에게 정보접근의 기회

7) Bob Usherwood, **정보사회와 공공도서관**, 오동근 역.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96. pp. 30-39.

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⁸⁾ 말하자면, 민간정보공급업자에 의한 사적 부문의 정보에 대한 투자증가와 공공영역의 예산삭감 등으로 공적 정보영역의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식과 정보 접근의 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공적 정보 봉사 확대를 위해 출발한 공공도서관의 이러한 사명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시되고 있다.

지식산업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의 상품화와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수요 공급 현상은 필연적인 것이다. 이에 따라 수요가 있는 곳에는 사적 부문의 유료 정보 서비스 기관이 나타나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리고 공적 부문의 정보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공도서관에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도입은 전통적 도서관에서 디지털도서관으로, 인쇄매체에서 전자매체로, 소장에서 접근의 개념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도서관에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서비스를 가능케 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도서관에 오지 않고도 접근에 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최신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서비스 분야가 새로운 이윤확보의 수단으로 등장하게 되자, 민간부문의 '지식과 정보산업'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 정보불평등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이는 통신망을 통해 지식과 정보접근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상업정보 제공업자를 통해 양질의 정보와 지식을 이용하는 경향이 나타나, 기존 공공정보를 중심으로 무료성 원칙을 고수하던 공공도서관의 정보서비스가 본질적으로 도전을 받게 되었다.

지식산업사회에서 컴퓨터 마우스 클릭만 하면 요술방망이처럼 해결될 것으로 믿었던 미래에 대한 환상과 자유로운 정보접근을 통해 전자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던 환상들이 정보의 사유화, 상업화 경향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 우리는 2010년에 완성된 '초고속정보통신망'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를 전송 받는데 값비싼 고성능 모뎀, 접속이용료, 골치 아픈 저작권 문제 등은 정보이용의 불평등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한편 대기업을 중심으

8) Vincent Mosco & Janet Wasko, **정보에 지배당하는 사회: 정보의 정치경제학**, 민글 편집부 역. 서울: 민글, 1994. pp. 166-190.

로 모든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⁹⁾ 정보제공이 무료로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역간, 계층간, 도시와 농촌간의 정보불평등은 심각한 상황이며, 정보선진국과의 정보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지역간 정보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을 이제환은 서울과 부산간의 정보생산능력, 정보유통능력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전문정보의 생산과 관련한 기관의 대부분이 서울에 집중됨으로써, 지방의 행정기관과 기업체를 비롯한 각종 단체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의 수집을 위해 서울에 의존적이 되고, 이 의존현상은 관련 전문인력의 서울집중 현상을 부추기며,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배출한 인력마저 서울지역으로 유출되면서 지방의 지식과 정보생산능력은 더욱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정보 유통능력에서도 서울과 부산간의 출판관련기관, DB유통기관, 그리고 도서관 및 정보센터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토착지식자원의 개발 없이 초고속정보도로가 놓이는 것만으로는 지역의 경쟁력이나 생산성이 증대될 수 없다는 것이다.¹⁰⁾

또한 정영애는 컴퓨터통신에서 천리안 가입자의 지역별 분포를 통해 정보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경기 지역이 5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부산/경남 14%, 대구/경북이 9%를 차지하여 수도권 중심으로 비율이 높은 편이다. 또한 사회계층별 불평등 현상을 천리안 동호회 참여현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학(원)생 36.9%, 전문직 24.5%, 사무직 6.5%, 관리직 5.9%, 생산직 2.4%, 농어민 0.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 구성비를 천리안 가입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남자 76%, 여자 24%로 단연 남자가 앞서고 있다.¹¹⁾ 위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식산업사회의 이행과정에서 지역별, 계층별, 성별 정보불평등이 심각함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정보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서도 비슷한 모

9) J. 스탈러브라스, "사이버스페이스의 탐험", **참작과 비평**(1996. 봄호), p. 369.

10) 이제환, "지역간 정보불균형의 현황과 대책", **정보통신연구보**(부산대학교 정보통신연구소), 제 7호(1995. 12), pp. 254-264.

11) 정영애, "정보사회와 교육: 그 패러다임 변화와 딜레마, 그리고 교육적 선택", **정보화시대의 공동체: 제9회 학술발표회**(청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 3-18 - 3-19.

습을 보이고 있다.

지식산업사회가 도래하면 이러한 정보불평등은 정보기술의 발달로 해소될 것이라고 일부 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이 국가간의 자유로운 정보유통에 기여하고 있으나 국가간, 지역간의 지식과 정보의 균형된 흐름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정보기술이 발달된 나라와 정보기술 수준이 낮은 나라, 정보기술이 발달된 지역과 수준이 낮은 지역사이에는 '지식과 정보'를 매개로 한 새로운 '종속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정보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국가와 지역은 가공되지 않은 raw data의 공급을, 정보기술이 발달된 나라와 지역은 데이터 처리를 위한 시설을 운영하면서 수입된 raw data를 가공 처리해 다시 수출하는 역할을 맡음으로써, 국가간, 지역간 '정보격차'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공공도서관이 사회적 장치로 태어날 때는 교육적 기회를 갖지 못한 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어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시설로 출발되었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한 정보접근권을 갖고 태어났음에도, 지식산업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지식과 정보의 사유화와 상업화 현상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지체나 방어를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의 본질인 지식과 정보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화하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도서관의 본질에 대하여 버틀러(P. Butler)와 셰라(Jesse H. Shera)의 이론을 살펴보자.

도서관은 인류의 기억을 보존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적 메커니즘이며 도서관은 이것을 살아있는 개인의 의식에 환원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¹²⁾

도서관은 어떤 사회적 필요성을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창조된 것이며, 그 발전은 지식사 뿐만 아니라 조직구조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며, 문화를 지탱하는 가치시스템이다.¹³⁾

12) P. Butler, *An Introduction to Library Scienc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3, p. xi.

13) Jesse H. Shera. *Introduction to a Library Science: basic elements of library service*. Littleton: Libraries Unlimited, Inc., 1976, p. 42.

위의 두 학자가 말하는 도서관의 본질은 인류의 기억을 보존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이며, 인류의 문화를 지탱하는 가치시스템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기술만을 추구하는 기술맹신주의자들은 전통적 도서관과 디지털도서관의 본질을 별개의 개념으로 보려고 한다.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인류의 기억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수단은 변하여 왔으나 도서관의 본질적 기능은 변할 수 없는 것이다. 권은경은 디지털 환경 하에서도 도서관은 그 본질적 기능을 지켜나가야 하며, 본질적 기능은 문화적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도서관, 지식실체로서의 도서관, 장소로서의 도서관이라고 말하고 있다.¹⁴⁾ 크로포드(W. Crawford)와 고먼(M. Gorman)도 디지털 환경 하에서 도서관의 본질을 지켜나가기 위한 '도서관학 5법칙'을 제시하고 있다.

- 제1법칙 : 도서관은 인간애로 봉사하라.
- 제2법칙 : 모든 형태의 지식을 존중하라.
- 제3법칙 :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기술을 지혜롭게 사용하라.
- 제4법칙 : 지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라.
- 제5법칙 : 과거를 존중하고 미래를 창조하라.¹⁵⁾

크로포드와 고먼의 도서관학 5법칙은 디지털도서관의 겉모습만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지침을 주고 있다. 21세기를 앞둔 지금 디지털도서관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다가는 디지털도서관이 내포하고 있는 문화의 이질성과 그로 인한 정보종속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고 디지털화하는 환경을 거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우리나라 정보종속의 원인을 살펴보고, 여기에서 우리 나름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 대응방안은 공공도서관의 본질 구현을 하는데 장애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선진국과 중앙에 정보종속을 당하지 않는 지역사회 나름의 지식과 정보유통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할 것이다.

14) 권은경, "도서관의 본질과 미래도서관상", **도서관학논집**, 제27집(1997 겨울호) pp. 423-456.

15) W. Crawford and M. Gorman, *Future Libraries : dreams, madness, & reality*. Chicago : ALA, 1995. p. 8.

IV. 우리나라 정보종속 현상의 원인

동구권의 몰락과 동시에 사라졌던 종속이론이 정보사회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다. 정치-경제적 종속이 아니라 디지털자원의 종속이라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문화침투는 위성방송, 비디오테이프, 잡지 등을 통한 외국문화의 침투였다. 이러한 매체들은 위성방송의 경우 시청권이 제한되어 있고, 또 방해전파를 쏘므로서 일정수준 제어할 수 있었고, 비디오 테이프나 잡지의 경우는 인허가라는 여과 장치를 통하여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네트워크를 통한 지식과 정보의 침투는 쉽게 통제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즉, 국가간, 지역간, 개인간에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 지식과 정보가 자유로이 유통되고 있다. 정보고속도로의 이러한 성격을 간과한 정보선진국에서는 21세기를 선점하기 위하여 초고속정보도로를 건설하는데 여념이 없다. 초고속정보도로 건설 계획은 1993년 9월 미국의 엘 고어 부통령이 '국가정보화전략'의 일환으로 그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이후 일본을 비롯하여,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 중국, 싱가포르, 한국 등 전세계의 주요국가들이 앞다투어 새로운 정보화 전략을 수립하고 초고속정보화 전략에 뛰어들었다. 엘 고어의 초고속정보도로 계획이 발표되자 다른 나라에서 경쟁적으로 이 계획을 발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엘 고어의 계획이 미국의 정보통신기반 만을 확충하는 차원이 아니라 미국 경제를 통합하고 세계를 계속 지배하고자 하는 야심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¹⁶⁾

지식산업사회가 도래하기 전, 세계의 도로망은 강자에게는 지배의 수단으로, 약자에게는 수탈의 통로로 이용되었다. 과거 일제치하에서 일본인들은 침략정책의 일환으로 경인선, 경부선 등 철도를 놓아 한반도를 수탈하고 지배하는 시설로 활용하였다. 지식산업사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 자원의 경쟁력이 균등한 국가 사이에 놓여진 초고속정보도로는 상호호혜의 원칙아

16) 우병현, 앞의 책, pp. 15-17.

래 균형 있는 소통이 가능하나 경쟁력의 격차가 있는 나라 사이에서는 정보힘인력에 의해 약소국이 끌려가게 된다. 현재 인터넷을 통하여 이미 국가간, 지역간 디지털자원 이동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추세로 보면 디지털자원의 이동은 하나의 방향으로만 일어나고 있다. 즉, 미국 등 정보선진국과 중앙에서 정보후진국과 지방으로 디지털자원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화보급률, 컴퓨터보급률 등 외형적인 면에서는 눈부신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디지털자원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 분야는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바탕은 무엇이어야 할까. 이는 우리 삶의 모습을 담은 토착지식자원(인쇄자료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은 200년 동안의 짧은 역사동안 그들의 삶을 담은 토착지식자원을 구축하여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자원을 만들어 세계를 제패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정보종속 현상은 토착지식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일어나며, 토착지식자원의 부족은 정보선진국과 중앙의 디지털 자원에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정보종속의 치유책으로 정보통신기술의 측면에 치우친 나머지 기술의 종속을 극복하는 데만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토착지식자원이 부족한 원인이 무엇일까. 토착지식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지식과 정보를 담고 있는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데이터베이스 육성정책을 펴고 있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다.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의 역사적 측면, 지식과 정보의 소비 문화적 측면, 지식과 정보의 생산 문화적 측면을 기록문화의 관점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역사적 측면

건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기반구축의 일환으로, 조선시대에 정조는 규장각을 세워 당시 도도하게 밀려오는 산업화라는 세계사의 조류에 대처하기 위해 민

족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한 바 있다. 그러나 정조 사후에는 급변하는 세계사의 조류를 주체적으로 이겨내려는 그와 같은 모습은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없었고, 마침내 일본에 국권을 빼앗기는 국치의 아픔을 맛보게 되었다.

일제의 침탈로 인해 우리사회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시기에 일어나는 지식과 정보의 생산-소비의 정상적인 분화가 지연되었다. 이 시기에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지식과 정보의 생산-소비구조의 분화가 조직 안팎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게 되며, 사회적 차원에서는 도서관, 출판업자, 언론사 등 지식과 정보의 생산과 유통의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들이 속속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강화수호조약' 체결후 개화사상가들에 의해 나타나, 각종 외국어 학교의 설립, 한성순보와 같은 근대적 신문의 발행, 우정사업의 전개, 근대적인 기업체의 창설 등 근대 지향운동이 다양하게 일어났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사상과 기술은 서적을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서적을 보관하는 시설인 '도서관' 설립을 통하여 민족의 주권 회복이 가능하다고 믿어, 도서관 세우는 일에도 힘을 쏟게된다.¹⁷⁾ 이때 나타난 도서관이 서울에 '대한도서관'과 평양에 '대동서관'이다. 이들 도서관은 일본과 구미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아들일 수 있었던 서울과 평양의 도심지를 중심으로 하여 민족계도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설립하였으나 한일합방으로 인해 그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서구의 경우, 초기산업사회에서 발달하기 시작한 공공도서관은 근대시민사회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공급하는 한편, 시민의식 확산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도서관이 지식과 정보의 공급처가 아니라 식민지인 교화수단의 하나로 활용되었을 뿐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식민지 시대에 설립된 부산시민도서관의 당시 장서구성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일제가 도서관으로 하여금 수집케 한 도서들은 수필, 문학작품 등 교양물 일색이었음을 다음 글에서 잘 알 수 있다.

17) 오한석, "한국 근대도서관 설립운동의 사적고찰: 개화기 일제지하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 교육대학원), 1987, p. 43.

일본 이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기본교양과 교육장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것은 도서관 설립초기부터 시작하여 일제강점기 내내 이 도서관장서의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일본의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인 교화를 위한 장서였다는 점으로 이는 1919년의 3·1운동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장서로서의 성격도 이 시기 후반부로 가면 서 점차 나타나기 시작하였다.¹⁸⁾

정보주권이 일제에 침탈 당함으로써 발생한 가장 큰 폐해는 민족적 지식과 정보자원의 축적지연과 우리나라 주요 공공도서관의 뿌리를 일제에 두게되었다는 점이다. 1945년 광복 후의 공공도서관의 모습은 일제 때의 시설과 장서를 그대로 인수하여 명칭만 바꾸어 놓은 상태였으며,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에도 공공도서관계는 6.25동란으로 오랫동안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¹⁹⁾ 5.16혁명 후 도서관법이 제정되지만 경제제일주의 정책으로 인해 문화부분은 정체상태를 면하지 못하였다. 급기야는 유신정부의 출현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철저히 봉쇄 당하면서 공공도서관과 같은 대국민 서비스 기관들은 철저히 방치 당한 채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²⁰⁾ 문민정부 출범으로 지금의 공공도서관의 모습은 외형적으로 전문직 관장시대를 맞아 어느 정도 변화하고 있지만, 내실은 도서관 행정체계의 3원화, 도서관장 문제에서 발단된 공공도서관의 명칭변경 문제, IMF사태이후 경제논리 만을 내세워 공공도서관을 민간에 위탁하려는 움직임 등은 그대로 남아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민족정보자원의 축적기지로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각종 수험생의 공부방 구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며, 토착지식자원이 부족하게 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지식과 정보의 소비문화적 측면

18) 김영기, 앞의 논문, p. 76.

19) 김포옥, “광복이후 한국공공도서관사 연구 : 일제하 공공도서관제도의 영향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0. p. 126.

20) 강대훈, **한국도서관운동론**, 광주 : 도서출판 광주, 1990, pp. 31-32.

우리 국민의 지식과 정보 소비문화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제도이다.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의 문제는 대학입시 제도에 의해 절대적 영향을 받고 있다. 오늘날 수능시험과 논술고사제도는 과거 단순암기 위주의 학습으로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객관식 학력고사와는 상당히 다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입시제도의 근간은 단순 암기와 경쟁위주여서 학생들은 정규학교 수업 외에 보충수업, 자율학습, 과외,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교육패턴 하에서는 자료 활용을 통한 창의력과 이해력을 길러주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단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점수 벌레를 만드는 교육만 존재하였다. 우리의 이러한 교육패턴의 결과 학교교육을 마친 사람들이 사회에 진출한 후 본인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도서관을 통해 해결하는 이용습관을 가지지 못하였고, 주체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소비하는 문화를 형성시키지 못하였다. 그 결과 우리사회는 인간의 사고력을 바탕으로 한 고급문화 보다는 저급한 문화가 판을 치고 있으며, 정보자료를 통해 양질의 문화를 제공하는 공공도서관은 그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공부방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이용자 요구를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에 필요한 토착지식자원을 확보할 계기를 상실한 채, 주체적인 정보제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 하나의 정보중속 현상의 원인은 정부의 관료적인 정보화 정책에 기인한다. 금번 동아일보사에서 실시한 정부의 부처별 정보화정책에 대한 평가자료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현정부에서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각 부처마다 정보화책임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대부분 부처에서 기획관리실장이 겸직하고 있다. 이들은 장관을 도와 각 부처의 정보화를 꾸려나가야 하는 책임자인데 겸맹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내 부처간 정보화의 주무부서로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가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고, 전자상거래는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콘텐츠 산업의 육성에는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가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자 메일 ID는 정부 부처내의 과장급 이상만 발급해 주고 있어, 주 사용자인 중하위직 공무원들은 개인적으로 PC통신에 가입하거나 과장의 ID를 사

용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²¹⁾ 이러한 정부의 관료적인 정보화 정책은 정보선진국과의 정보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만들어 정보종속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보종속의 원인을 우리의 문화적 특성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문화적 특징으로 지성이 존중받지 못하고, 지식이 높ی 평가받지 못하고, 전통문화를 잊어버린 지적 황무지 상태인 정신적 공동현상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우리의 문화가 대중매체를 통해 저속하고, 퇴폐적인 소비문화로 나아가고 있으며, 외래문화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우리문화의 자생력을 키우는데 실패한 철저한 외래문화 지향적으로 흐르고 있으며, 60년대 공업화이후 개인의 성공은 높은 학력이나 튼튼한 재력이나 권력을 가짐으로써 가능했으므로 힘의 문화가 주류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저급한 문화가 지식과 정보 소비문화에도 그대로 나타나, 우리 나름의 주체적인 양질의 문화를 형성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는 우리 국민이 지식과 정보 이용 관습에서도 정보종속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자신에게 붙어닥친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주로 아는 사람을 통해 해결하려는 관습이 있어, 정상적인 지식과 정보유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예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상품을 고를 때 상품 카탈로그를 보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패턴에 익숙하지 않고, 물건을 속지 않고 구매하려는 심리에서 '아는 사람'을 찾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아는 사람'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습관은 다른 분야에서도 나타나,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아는 형사', '아는 검사'를 먼저 찾고, 의료 서비스 문제가 발생하면 '아는 의사'를 먼저 찾는다. 즉, 공식 경로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혈연, 지연, 학연 등 비공식 경로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얻는데 습관화되어 있다.²²⁾ 이러한 지식과 정보 소비문화는 정보의 공유의식을 부족하게 만들며, 공유의식의 부

21) "정부정보화 평가" **동아일보**, 1998. 11. 7(토요일), 6면.

22) 이러한 문화를 우병현, 앞의 책, p. 147. 에서 '아는 사람 만능문화'라고 표현하고 있다.

족은 자신의 삶을 기록으로 남기는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기록문화의 낙후성을 초래하고 있다. 기록문화의 낙후성은 공공정보를 유통 관리하는 시설인 공공도서관의 발달을 느리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식과 정보 소비문화 형성 저변에는 그 동안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부와, 모든 것이 중앙에 집중된 우리의 사회구조에도 문제가 있다.

모든 지식과 정보의 생산이 중앙에 집중되다보니 생산된 지식과 정보는 중앙 권력의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수단이 되어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대신 중앙에 머무는 경향이 일반적이었다. 또한 지식과 정보의 상품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민간기업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들 민간기업의 대부분이 서울지역에 그 활동본거지를 두고 있다. 따라서 민간차원에서 수집된 raw data 또한 서울에 집중되고, 정보처리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체들의 본사에서 이 자료들은 가공, 처리되고, 이렇게 생산된 정보의 대부분이 서울지역 주민들에 의해 소비되어, 서울과 지방의 정보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지방 사람들은 지역에 관한 각종 raw data를 스스로 가공, 처리, 분석하여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지 못하고, 대개의 경우 중앙에 올려진 지식과 정보를 수동적으로 이용하는 소비문화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

우리의 교육풍토, 관료적인 정보화정책, 저급문화가 주류를 이루는 문화의 특질, 이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아는 문화' 관습은 공공재를 유통시키는 공공도서관의 발전을 느리게 하고 있으며, 모든 지식과 정보의 중앙화는 지역에서 독자적이고 창조적인 토착지식자원을 생산하지 못하고, 중앙에서 제공해 주는 지식과 정보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데 익숙해져 온 사회구조가 토착지식자원 부족의 원인이며, 이는 정보중속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지식과 정보의 생산문화적 측면

지식과 정보의 생산은 기록문화에서 나온다. 오늘날 미국과 일본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배경에는 그들 나름의 독특한 기록문화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충실히 기록으로 남겨, 이를 유용한 삶의 자산으로 활용하고, 이를 다시 기록으로 남기는데 익숙한 사회적 관습을 지니고 있다. 예컨대 미국인들은 업무일지를 작성함에 있어 업무처리 방법, 절차, 애로사항, 협조사항 등 실무형 지식과 정보 등을 담아 업무개선이나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게 한다. 우리의 일지 작성습관은 주로 형식적인 내용들로 채워서 보고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의 지식과 정보 생산문화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보고하고 과시하기 위한 기록문화가 주로 발달해 있다.²³⁾ 이렇게 되는 이유는 첫째 현장에서 열심히 기록해 둔 것이 없기 때문이고, 둘째는 누군가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자랑하고픈 목적에서 기록을 남기기 때문이고, 셋째는 이러한 기록류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얻으려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진솔하게 남기기보다는 단지 과시와 보고용으로 기록을 남기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기록은 모든 지식과 정보자원의 원천으로써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일상적으로 남길 때, 이들 기록물들은 곧 우리의 토착지식자원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지식과 정보의 생산문화가 전시용으로 흐르게 된 데는 지역에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그 지역사회에서 생산 유통하는 사회구조가 되어 있지 않아, 지식과 정보의 소비현상에서 처럼 생산에서도 중앙에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런 지식과 정보의 생산구조는 토착지식자원 형성을 늦게 할 뿐만 아니라, 중앙부와 주변부의 지식 및 정보 생산능력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는 주요한 계층인 연구자들의 연구자세에서도 정보종속의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조동일은 우리학문이 세계학문이 되려면 창조적인 학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학계의 지식과 정보 생산의 분위기를

23) 이러한 문화를 우병현, 앞의 책, p. 154.에서 '전시용 기록문화'라고 부르고 있다.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남의 학문 가져와서 자랑하는 '수입학', 남의 학문 가져와서 나무라는 '시비학', 우리 학문으로 남의 학문 막아내는 '자립학', 우리 학문으로 남의 학문 넘어서는 '창조학'으로 구분하고 있다.²⁴⁾ 지금까지 우리의 학문풍토는 우리나라의 현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과제와 씨름하기보다는 서구의 이론과 방법을 수입하여 우리 자료에 적용하고, 서구학자들의 연구성과를 서둘러 읽고 끌어들이 남먼저 써먹는 일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어, 조동일이 말하는 수입학과 시비학의 부류에 속하는 연구 생산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우리 학계의 지식과 정보 생산 풍토에 대하여 김영민은 기지촌의 지식인이라고 말하고 있다.²⁵⁾ 기지촌의 지식인들은 남들이 읽지 못하는 문헌들을 읽어내고, 남들이 통행할 수 없는 기지 속을 돌아다닐 수 있다는 사실은 기지촌 지식인들의 허위의식이 시작되는 지점이며, 동시에 자신의 현실과 남의 현실을 혼돈하기 시작하는 지점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학계의 학문풍토는 서구학문에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식민성과 서구추수성, 지적허위성을 지니고 있어 우리의 터와 때에 맞는 적실성 있는 연구물을 생산하지 못하고 서구 대가의 권위에 기대어 연구 결과물을 생산해 온 결과 정보종속을 심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 학문의 이러한 풍토는 출판산업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아용 도서의 경우 대부분 외국의 도서를 복사판 형태로 간행하고 있어, 우리 아이들의 생활문화나 의식구조를 서구화 하고 있으며, 아동도서의 경우도 황당무계한 줄거리와 억지웃음을 강요하는 명랑도서들이 판을 치고 있다. 저질의 만화와 연예 기사, 스포츠기사로 가득 채워진 잡지, 여성지의 기사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은 어린이 잡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이용 순수 문예지는 거의 전멸 상태이며, 단행본을 성실히 간행하던 출판사도 수지가 맞지 않아 문을 닫는 형편이며, 기껏 낸다는 것이 외국의 번역물을 싸구려 원고료를 주어 책모양만 곱게 꾸며 간행하고 있는 형편이다.²⁶⁾ 결국 상업주의화 한 출판물들이 오락물들을

24) 조동일, **인문학문의 사명**.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pp. 26 -56.

25) 김영민, **탈식민성과 우리 인문학의 글쓰기**. 서울 : 민음사, 1996, pp. 55 - 102.

중심으로 저급한 서구화를 조장하고 있어, 우리 사회의 정보종속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이다.

V. 공공도서관을 통한 정보종속 극복방안

1. 지식자원의 생산과 소비패턴의 변화

지방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선진산업 시찰차 외국을 방문하는 지방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이 나들이하면서 보고들은 것을 그대로 기록하면 그 다음 나들이하는 사람들은 이를 바탕으로 그 다음 단계의 지식과 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을 지방의원들의 해외시찰 모습에서 찾기가 힘들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과거 생산된 지식과 정보와 동일한 범주에서 반복 생산하는 중복생산을 계속하고 있다. 그나마 생산된 각종 통계, 백서, 연감 등의 정확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한다. 이들 자료들은 기초지식자원에 해당되며, 매년 연속적으로 누적되는 특성이 있다. 최정태는 그의 글에서 우리나라 도서관의 장서통계의 허구성을 지적하면서 도서관의 각종통계는 정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²⁶⁾ 통계, 백서, 연감은 기초지식자원이므로, 이들의 부실은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화 한 지식자원들의 부실로 이어져 우리나라 지식산업 전체의 부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지식과 정보생산의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릴레이식 지식과 정보생산을 통해 지식과 정보의 중복생산 방지, 정확하고 정직한 기초지식자원 생산 및 기록문화의 정착 등이 필

26) 박인웅, “한국의 문화발전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역할”, **도서관학논집**, 제21집(1994), pp. 310 - 311.

27) 최정태, “도서관은 정직해야 한다: 최근에 발표되는 ‘대학도서관 장서통계현황’을 보고”, **도서관문화**, 제39권 제1권(1998, 1·2), pp. 12-19.

요하다.

다음은 지식자원의 소비패턴 변화를 통한 정보종속 극복방안을 생각해보자. 사회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는 과정에 사람들의 지식과 정보이용 행태에 변화가 나타난다.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대량생산-소비구조로 사회가 변모하면서 사회구성원 누구나 싼 비용으로 지식과 정보를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 지식과 정보를 자신의 일에 적극 활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지식과 정보가 필요한 경우 도서관이나 서점을 통해 관련서적을 구해 읽거나, 신문, 방송을 통해 관련정보를 얻는 사회가 된 것이다. 즉, 과거 농업사회에서 주변사람들에게 물어 비정형화 한 지식과 정보를 얻던 방법에서, 산업사회에서는 도서관이나 언론사 등 정형화 된 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얻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업화의 과정에 일제의 침탈로 대량생산-소비 구조로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앞선 나라들에서처럼 도서관 등을 통한 정형화된 지식과 정보를 얻는 과정을 경험하지 못하고, 혈연, 학연, 지연 등 비공개정보를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광복 후 언론기관, 대학, 연구소, 도서관 등이 나타나 이들 기관을 통한 공개적인 지식과 정보를 구하여 활용하는 사회적 관습도 생겨나, 아는 사람을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던 관습과 함께 이중구조가 형성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이후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 전화보급을 등에서 선진국의 정보화 지수를 따라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업사회에서의 정보화와 지식산업사회에서의 정보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모습들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우리사회는 농업사회, 산업사회에서 지식과 정보 소비패턴에서 지식산업사회에 걸맞은 소비패턴으로 변화해야 한다.

지식산업사회에 맞는 지식과 정보의 생산과 소비패턴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암기식 교육방법에서 창조성이 우선시 되는 교육풍토로 바뀌어야 하며, 우리 사회의 모든 평가기준을 경제와 효율성의 논리만을 내세운 것에서 삶의 논리도 평가의 기준으로 도입되어야 하며, 지식을 생산하는 연구자들의 연구풍토도 서구의존적인 자세를 탈피하여 우리의 터와 때에 맞는 적실성 있는 연구

물을 생산해 내어야 하며, 우리의 출판산업도 상업주의화 한 오락물과 서구화를 조장하는 풍토에서 탈피하여 우리의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위와 같은 지식의 생산과 소비패턴의 변화는 지금까지 개인차원에서 지식과 정보를 얻던 것에서, 책이나 신문, 잡지 등 공개된 지식자원에 의존하는 사회로 변모케 할 것이다. 이런 변화는 공개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의 사회적 필요성을 증대시켜 줄 것이며, 이는 지역 공공도서관의 발전을 가져오도록 할 것이다. 공개적인 지식과 정보를 유통관리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시설이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이다.

2. 종자지식자원의 확보

우리나라 어느 도서관을 가더라도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열풍을 쉽게 느낄 수 있다. 아주 대규모 도서관에 속하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부터 조그만 군립도서관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열풍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 디지털도서관이 완성된다고 지금의 우리나라 도서관의 모습이 나아지며, 더 나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등 정보선진국에서는 디지털도서관의 꿈을 조금씩 실현시켜 이용자들로부터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들은 지금까지 모은 많은 수의 실물장서를 바탕으로 하여 디지털 도서관을 진행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서관들은 현재 디지털화 한다고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다. 도서관 서비스의 질은 전산시스템의 최신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자료의 질과 사서의 수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현재 턱없이 부족한 실물장서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지 않고 디지털도서관만 추구해서는 영원히 이용자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줄 수 없게 될 것이다.

선진국에서 만들어 가는 디지털도서관의 핵심은 선진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올드미디어 형태의 지식자원을 먼저 확보한 데 있다. 오늘날 세계 유명대학들이

추진하는 디지털도서관은 어디까지나 수백년동안 광범위하게 축적되어 온 올드 미디어의 지식자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기술맹신주의자들은 부족한 디지털 자원은 해외에서 수입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지만, 수입한 디지털 자원의 뿌리는 어디까지나 그 지식자원을 생산한 나라에 있다.

지식자원과 관련하여 우리의 과제는 기본적 지식자원의 축적, 정보행위의 합리화 및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분야의 디지털자원 축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세가지 중 어느 분야를 우선하여야 할까. 지식자원의 기초적 축적에 해당하는 종자지식자원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종자지식자원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대한 기록이다. 이 기록물을 보존하는 시설이 지역사회의 공공도서관이다. 지역의 공공도서관은 그 지역사회의 종자지식자원을 관리하는 시설이며, 공동체 문화를 일궈 가는 시설이다. 종자지식자원을 보존하는 일상성의 도서관이 우리 삶의 가까이 세워져,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지식자원을 생산해 내어야 한다. 이러한 지식자원은 우리의 터와 때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지식자원의 생산과 소비는 정보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의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모습으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아마 역부족일 것이다. 우리의 삶 주변에 '일상성의 도서관'이 있어 우리의 종자지식자원을 확보해 나갈 때 가능할 것이다.

3. 일상성의 도서관 세우기

종자지식자원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기록한 기록물들이다. 인류의 지식과 정보를 유통관리하는 시설로서의 서점은 지식자원을 유통하는 상업화 한 시설 중에 하나이다. 상업화 한 시설들은 그들의 속성상 잘 팔리는 자료위주로 지식과 정보를 유통시킬 수밖에 없다. 지식과 정보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조되어질 때 접근의 평등성을 확보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은 공공재로서의 지식자원을 축적하고 제공하는 기관이다. 시민들이 언제나 이웃집 찾아가듯이 편안하고 쉽게 찾아

가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시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일상성의 도서관과는 거리가 멀다. 일상성의 도서관 세우는 전략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은 이용자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 생활 속의 도서관을 세우는 일이다. 과거 우리사회는 성장의 논리가 사회분위기를 주도해 왔다. 이제는 삶의 질을 바탕으로 한 인간화의 논리로 대전환을 해야하는 시점에 와 있다. 특히 지방화시대에는 지역사회가 유기적인 협조 아래 한 덩어리가 되는 지역통합력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관건이다. 도서관은 삭막한 도시공간에 오아시스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장소의 개념이 없는 기계적 장치로서의 도서관이기 보다는 이웃이 있고 정답이 있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이어야 한다. 과거 우리 민족은 한 동아리에서 촌락을 이루며 공동체 생활을 영위해 왔다. 점차 이 땅에 산업화의 물결이 밀려 오면서 생산현장과 생활현장이 분리되고 이농현상과 함께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이 일어났다. 도시에 이합집산 된 무리들은 새로운 정착지에 뿌리를 내렸지만 우리 전통적 삶의 모습은 사라져 버렸다. 과거 전통사회에서 공동체로 묶어 주었던 두레, 향약, 계 등의 유산을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해 낼 수는 없을까. 개인의 자유, 삶의 질, 삶의 안정은 우리 삶의 기초인 지역공동체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지역주민의 삶의 공동체를 엮어나갈 시설의 하나로 공공도서관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일상성의 도서관은 평균적인 시민들이 원하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 지식자원은 우리의 토착문화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이들 지식자원은 그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작가나 학자의 육필원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노인의 육성을 담은 테이프, 그 지방사람들의 다양한 삶과 일을 살펴볼 수 있는 사진이나 그림과 같은 그래픽자료도 필요하다. 이러한 자료들은 정보선진국에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않는다. 이는 우리 삶의 공동체를 엮어 나가는 지역 공공도서관의 몫이다.

도도하게 밀려오는 정보선진국의 정보화물결에 대응하는 길은 우리 나름의 토착지식자원을 바탕으로 한 일상성의 도서관을 세우는 일이다.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을 얻거나 아니면 주민운동 차원에서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창원에는 주민운동 차원에서 세운 일상성의 도서관인 마을도서관이 19개가 있다. 이 도서관은 디지털화 한 지식과 정보가 초고속정보도로를 통해 정보선진국과 중앙에서 밀려올 때 지역사회가 정보주권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창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을도서관 운동에 대하여 살펴보자.

VI. 정보주권 운동의 사례-창원지역 마을도서관 이야기

창원시는 1974년에 제3공화국 정부의 중화학공업정책에 따라 국내 최대의 기계공업단지의 배후도시로 조성되었다가 1980년 4월 1일자로 창원지구 출장소에서 창원시로 승격되었다. 1983년경 당시 인구 14만 여명을 수용하는 도시로 성장한 창원시는 1983년 11월 16일 '경상남도립도서관'을 교육단지내에 세우게 되었다. 초기에 이 도서관은 학생들의 공부방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1983년 7월에는 경상남도청이, 동년 9월에는 경상남도교육청 등 도단위 행정기관들이 창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공단 배후도시로 출발한 창원시가 도단위 행정·중추기능을 확충하면서 지역 중심도시로 급성장하게 되었다. 이에 창원시는 당초의 단순한 공단배후도시 기능에서 탈피하여 자족적 완결도시 건설을 목표로 한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되어, 1992년 말에는 인구 39만 여명을 수용하는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에 창원시에서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993년 12월 '창원시립도서관'을 개관하게 되었고, 창원시립도서관은 개관하자마자 지역주민의 문화, 정보, 평생교육을 위한 시설로 사랑을 받게 되었다.

창원시립도서관 개관과 동시에 자료이용자가 초만원을 이루게 된 것은 창원시의 태생적 환경과도 관련이 있다. 창원시는 자연발생적인 도시와는 달리 외지유입인구가 주민들의 90%를 넘고 있어 안정된 공동체적 성격을 확보하는 데 어려

움을 겪고 있는 도시이며, 문화적 혜택의 불모지나 다를 바 없는 삭막한 도시였다. 이에 비하여 공단조성과 도단위 행정기관의 유치로 주민들의 소득과 학력수준은 어느 도시보다 높아 주민들의 도서관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높은 곳이었다.

이에 비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시설이 부족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시작하였다. 그 돌파구가 마산의 '책사랑', 울산의 '글사랑', 진주의 '책마을', 남해의 '책사랑 나눔터' 등 민간도서관이 경상남도 도내 전역에 걸쳐 자료중심의 도서관으로 자리를 잡아간 것이다. 이 당시 신도시로 출발한 창원시의 주민들은 인근 마산의 '책사랑'까지 가서 자료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

창원은 인위적으로 만든 도시이므로 시민들에게 내가 사는 곳이라는 의식을 갖도록 하는 데는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공동체의식 고양을 필요로 하는 도시이다. 1990년대를 맞으면서 우리가 사는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식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고, 성장의 논리, 경제의 논리로부터 삶의 질을 바탕으로 한 인간화의 논리가 사회분위기를 지배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서관 문제를 주민운동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1993년 '책의 해'를 기점으로 싹트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1994년에 도서관 문제를 연구 실행하기 위하여 '경남도서관 및 정보문화발전연구소'(현재의 명칭은 경남정보사회연구소)를 지역의 지식인을 중심으로 설립하게 되었다. 이들은 연구소 개소식에서 중앙에서 생산한 지식과 정보를 지역사회에서 단순히 소비만 하는 수동적인 자세를 탈피한 지식과 정보의 자립운동을 선언하였다. 즉, 주민들의 참여에 의한 지식과 정보의 양자 소통체제를 주창하면서, 이를 위한 실행기관으로 마을도서관이 생활권 단위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들이 당시 주창한 선언문의 일부를 들여다 보자.

... 지식과 정보를 찾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위치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가 다 우리를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매일 3시간이상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며, 차를 타면 라디오를 듣고,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을 본다. 이러한 지식과 정보들은 매체산업의 장사를 위하여, 또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조작하고 지배하기 위하여 지식과 정보를 만들고 소통시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요구대로 사라지고 하는 것을 사며, 보라고 하는 것을 보며, 유행시키는 음악을 읊조린다. 그들이 좋다고 하는 것은 좋고, 그들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나쁘다고 반복한다. 내가 찾고 원하는 지식과 정보를 알려주고 도와주는 데는 없다. ... 이제 지식과 정보의 중앙 종속, 권력과 상업적 목적의 종속을 피하고 '지식과 정보의 자치, 자립'을 선언한다. 400만 경남도민은 더이상 도서관, 사서, 장서의 수, 법제도의 미비점을 방관만 할 수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의 참여가 없이 경상남도의 도서관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기대하지도 않는다. 우리가 나서지 않는 데 누가 해결해 준다는 말인가? 이제 우리는 지역주민의 힘으로 도서관을 건설하며, 우리가 가진 땅, 동전, 지혜를 모아 경상남도에 우리의 도서관을 건설하는 운동에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소는 '참여를 통한 지식과 정보의 소통'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① 우선 지역의 지식과 정보소통을 양자 소통체제로 바꾸는 것이다. 즉, 지역주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원하는 지식과 정보가 놓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지식과 정보를 수용하는 것보다는 주민의 요구를 파악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공동의 이익을 강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다. ② 이를 위하여 우리 주변에, 친근한 이웃에 마을도서관을 구축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마을의 회관, 아파트 복지센터, 관정, 공공건물, 종교시설, 학교, 직장 등 빈 공간을 이용하여 우리들 스스로 유연한 마을도서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③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들의 유대감은 문화 중심지로서 마을이 자리잡는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마을도서관을 지식과 정보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고받는 터전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단순히 중고교생들의 독서실이나, 유행하는 소셜류의 보급처가 아니라 주민들이 모여 의논하고, 주민과 마을의 발전을 위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²⁸⁾

지식과 정보의 중앙종속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일상성의 도서관을 세우고자 노력한 결과, 1995년 7월 1,800여 세대가 사는 사파동성아파트 단지내에 주민자치도서관 성격인 '사파동성 마을도서관'을 처음 개관하게 된 것이다.²⁹⁾

28) 이 글은 1994. 10. 4. 창원도서관 별관에서 개소한 '경남도서관 및 정보문화발전연구소' 개소식에서 당시 연구소 추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은진 교수(경남대학교 사회학과)가 작성 발표한 글로 연구소 창립선언문에 해당된다.

29) 사파동성 마을도서관은 아파트 내에 독립된 단층 건물로, 규모는 29평정도이고 주민자치도서관 성격이며 경남정보사회연구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처음 세운 도서관이다. 현재 사파동성 마을도서관의 운영은 최고 의결기구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다. 이 산하에 운영위원회가 있어 도서관 시설 및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 도서관 재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도서관구입 및 장서

그 이후 동 연구소는 창원시에서 운영하던 9개 복지회관을 위탁받아 2년여 동안 이들 복지회관에 봉림마을도서관을 포함한 9개의 도서관을 개관하였다. 창원시는 1997년경 인구가 50만에 육박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으로 대동제(大洞制)를 실시하면서 기존 동사무소를 문화복지센터 성격인 '동민의 집'으로 확대 개편하게 되었다. 이에 용지동과 명곡동의 동민의 집에 각각 마을도서관을 개관하게 되었다.

이 때를 기점으로 마을도서관 운동이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외에 타 시민단체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1997년 5월에는 새로이 개관한 남산사회교육센터를 '경남여성회'에서 위탁관리하면서 '남산마을도서관'을 개관하게 되었다. 대동제 실시와 함께 기존 동사무소로 사용하던 시설이 유희시설로 남아둘게 됨에 따라 이들 시설에 대한 활용을 논의하던 중 6개 시설물을 시민단체에 위탁하여, 1998년 2월에는 사회복지법인인 '경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소계마을도서관'을, 노인 무료진료 법인인 '복지법인 회연'에서 '명서 2동 마을도서관'을, 자원봉사단체인 '명서동 새마을협의회'에서 '명서1동 마을도서관'을, 여성운동단체인 '창원여성의 전화'에서 '신월마을도서관'을, 여성운동연합체인 '경남여성회'에서 '내동마을도서관'과 '가음정마을도서관'을 개관하게 되었다.

현재 창원에는 도서관 문제를 연구 실행하는 경남정보사회연구소에서 운영하는 12개의 마을도서관 외에 경남여성회에서 3개관, 창원여성의 전화에서 1개관, 경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1개관, 복지법인 회연에서 1개관, 명서1동 새마을협의회에서 1개관 등 6개 단체에서 19개 마을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1998년에 새로이 개관한 6개의 마을도서관과 주민자치도서관 성격인 사파동성 마을도서관을 제외한 12개 마을도서관의 1997년 말 현재 이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성에 관한 사항, 재정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매분기별로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있다. 실무는 경남정보사회연구소에서 파견한 2명의 유급사서요원이 관리하고 있다.

마을도서관 이용현황(1997. 12. 31 현재)

명 칭	개 관 일	장 서	독서회원수	열람자수	대출책수	프로그램수
계	12개관	47,721책	11,562명	71,879명	74,275책	177개
의창마을 도서관	97. 1. 30	4,542책	1,699명	8,634명	9,336책	16개
팔룡마을 도서관	96. 5. 20	4,111책	1,542명	9,598명	6,926책	11개
대원마을 도서관	96. 5. 31	3,295책	794명	4,621명	3,971책	20개
명곡마을 도서관	97. 10. 1	2,754책	1,047명	2,820명	4,824책	13개
봉곡마을 도서관	97. 1. 20	3,177책	648명	2,822명	3,667책	11개
사람마을 도서관	96. 5. 27	4,760책	714명	2,723명	2,805책	19개
반지마을 도서관	96. 5. 22	3,927책	1,021명	2,851명	3,720책	12개
중앙마을 도서관	96. 5. 30	3,204책	600명	2,534명	3,157책	9개
용지마을 도서관	97. 7. 14	3,269책	577명	8,730명	6,336책	18개
사파마을 도서관	97. 1. 24	4,462책	1,129명	5,747명	8,418책	20개
남산마을 도서관	97. 5. 20	5,475책	1,156명	5,821명	6,584책	11개
봉림마을 도서관	95. 8. 30	4,745책	635명	4,978명	4,531책	17개

(자료 : 창원시, 시정백서, 1998. pp. 85-86)

창원시 도시기본계획에는 도시 전체를 3개의 대생활권으로 하여, 그 아래에 8개의 중생활권과 40개 소생활권으로 나누고 있다. 이들 소생활권은 인구 2-3만을 기준으로 보행권과 일치하는 권역을 기준으로 나누고 있다.³⁰⁾ 소생활권 단위에 세워진 이들 마을도서관은 초·중등학교, 구매시설, 파출소 등 근린생활시설들과 함께 주민들의 일상성의 시설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들 마을도서관은 장서수

30) 창원시, 시정백서, 1998. pp. 450-455.

는 각각 3,000-6,000원 정도이고,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직원 1명과 사회교육을 담당할 마을교사가 상근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양자 소통체제에 의한 정보, 교육, 문화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 공간에는 이웃이 있고 삶이 있는 공간이며,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공동체가 형성되는 공간이다. 지식과 정보를 매개로 주민들이 만들어 가는 공간이며, 이웃의 지식을 함께 나누는 평생교육의 공간이며, 여기서 배양된 힘을 바탕으로 마을 단위의 문화를 가꿔나가는 마을공동체가 형성되는 공간이다.

과거 마을공동체 운동은 정답이 있는 이웃을 만드는 운동이었다. 지식산업사회에서의 마을공동체 운동은 지식을 바탕으로 한 삶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야 한다. 이러한 운동의 중심축에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을 담아놓은 마을도서관이 필요하다. 창원에서 만들어 가는 마을도서관은 정보선진국과 중앙에 정보종속을 막을 수 있는 유용한 사회적 시설물이 될 수 있다. 지역주민의 삶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 마을도서관은 정보선진국과 중앙의 강력한 정보흡입력에 지역사회가 흡수되지 않고 그들만의 삶을 굳건히 지켜줄 것이며, 지역사회의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함께 생산하고 소비하는 공동체 문화를 일궈갈 기반시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창원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장치로서의 마을도서관을 주민들의 참여에 의해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VI. 결 론

지식산업사회의 도래는 정보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낙관적인 입장과 비관적인 입장이 있다. 비관적인 입장은 지식산업사회의 도래는 감시사회, 대규모 실업사회, 정보불평등 문제가 심화된다는 입장이고, 낙관적인 입장은 재택근무, 전자민주주의, 원격교육, 원격의료 서비스 등 전자네트워크의 이용을 극대화하여

나타나는 사회적 이익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미래도서관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화 한 미래도서관은 이용자들의 정보요구 만족을 극대화시켜 줄 것이라는 긍정적인 입장과 정보접근 기회의 불균형으로 인해 정보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공공재적 성격인 도서관 서비스는 상업화 한 상업정보 제공업자들로 인해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입장도 있다.

미래는 현재 상황의 변화를 요구한다. 변화를 하려면 현재의 상황을 냉철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미래가 장미빛으로 다가올지, 위기로 다가올지 알 수 있다. 연구자들이 미래를 보는 관점은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현재보다 더 편리한 세상이 될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의 상황을 보라. 최근 IMF사태로 국가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우리사회의 모든 분야가 경제논리와 기술의 논리가 판을 치고 있다.

과거 성장논리에 따른 경제제일주의로 인해 도서관과 같은 사회적 장치는 투자순위에서 밀려났었다. 오늘날 경제논리는 효율성이라는 잣대로 획일적으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획일화된 잣대에 전통이니, 문화적 가치니, 인간의 삶의 질이라는 말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분위기에 기술의 논리도 함께 판을 치고 있다. 이에 따라 컴퓨터와 통신분야와 같은 첨단기술개발 분야는 그 힘을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때에 그 기본이 되는 철학이나, 이론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라는 분위기이다.

사회의 분위기가 경제와 기술의 논리로 움직이는 이 때에 공공도서관을 세우는 일은 참으로 애국하는 일이다. 사회의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기본인 토착문화를 일궈 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기술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더라도 그 기본은 인간이 이용할 내용물이다. 이들 내용물을 담고 있는 시설이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권은경. “도서관의 본질과 미래도서관상”. **도서관학논집**, 제27집(1997 겨울호), pp. 423-456.
- 김영기. “한국사회 지식흐름의 문제를 통해 본 공공도서관의 사회사 : 부산의 ‘P’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서관**, 제53권 제2호(1998 여름), pp. 51-93.
- 김영민. **탈식민성과 우리인문학의 글쓰기**. 서울 : 민음사, 1996.
- 김정근 편저. **디지털도서관 : 꿈인가, 광기인가, 현실인가**. 서울 : 민음사, 1997.
- 김종철. “공공영역을 통한 정보불평등 완화가능성에 관한 연구 : 미국에서의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서울대학교 대학원), 1997. 2.
- 박인웅.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88.
- 박인웅. “한국의 문화발전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역할”. **도서관학논집**, 제21집(1994), pp. 291-324.
- 박인웅 · 양재한. “한국 공공도서관의 정보제공기능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도서관학논집**, 제26집(1997 여름호), pp. 479-504.
- 북거일. **국제어 시대의 민족어**. 서울 : 문학과 지성사, 1998.
- 신재식. “정보산업은 산업혁명의 연장”. **디지털도서관**, 봄호(1996), pp. 64-65.
- 양재한. “건강사회 형성의 중심축, 공공도서관 : 도협칼럼”. **도서관문화**, 제39권 제2호(1998, 3·4), pp. 3-4.
- 양재한. “창원지역 공공 및 마을도서관 이용자 확보 방안”. **도서관학논집**, 제23집(1995 겨울호), pp. 211 - 252.
- 염홍철. **다시읽는 종속이론**. 서울 : 한울 아카데미, 1997.
- 윤선미. “정보사회에서의 지역간 정보불평등에 관한 연구 : 사회구조적 요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고려대학교 대학원), 1998.
- 이순재. “미국의 정보봉사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사적부문간의 갈등과 상호작용”. **동래여자전문대학 논문집**, 제13집(1994. 11), pp 53-67.
- 이제환,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도서관의 현실성”, **도서관문화**, 제39권 제3호(1998. 5·6), pp. 20-34.
- 이제환. “지역간 정보불균형의 현황 및 대책”. **정보통신연구보**(부산대학교 정보

- 통신연구소), 제7호(1995. 12), pp. 247-270.
- 전석호. **정보사회론 : 커뮤니케이션 혁명과 뉴미디어**. 개정 2판. 서울 : 나남출판, 1997.
- 정영애. “정보사회와 교육 : 그 패러다임 변화와 딜레마, 그리고 교육적 선택”. **정보화시대의 공동체**.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제9회 학술발표회(교원공제회관)
- 조동일. **인문학문의 사명**.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 창원상공회의소 · 경남신문사 주최. **21세기를 향한 창원시의 좌표와 발전과제 : 십포지움자료**, 1995. 5. 26.
- 창원시. **시정백서**, 1998.
- 창원시. **창원시사**, 1997.
- 창원시. **창원시통계연보**. 1997.
- 창원시. **대동제, 그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1997(홍보물)
- 최정태, “도서관은 정직해야 한다 : 최근에 발표되는 ‘대학도서관 장서통계현황’을 보고”, **도서관문화**, 제39권 제1권(1998, 1·2)
- 한상완, “디지털 시대의 도서관 환경변화와 그 대응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2권 제2호(1998. 6), pp. 97-120.
- Butler, P. *An Introduction to Library Science*.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3
- Crawford, W. and Gorman, M. *Future Libraries : dreams, madness, & reality*. Chicago : ALA, 1995.
- Drucker, Peter F.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이재규 역. 서울 : 한국경제신문사, 1997.
- Mosco, Vincent & Wasko, Janet. **정보에 지배당하는 사회 : 정보의 정치경제학**. 민글 편집부역. 서울 : 민글, 1994.
- Shera, Jesse H. *Introduction to a Library Science : basic elements of library service*. Littleton : Libraries Unlimited, Inc., 1976.
- Tomlinson, John. **문화제국주의**. 강대인 역. 서울 : 나남출판, 1994.
- Usherwood, Bob. **정보사회와 공공도서관**. 오동근 역.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96.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 Plan of Information Sovereignty through the Public Library

In-Ung Park * · Jae-Han Yang **

〈Abstracts〉

This is a way of establishing the information sovereignty in the industrial knowledge of society. The occurrence of the industrial knowledge of society builds knowledge and information as digital system. Digitalized knowledge and information has some characteristics of which the information should be light and variable, so that it can be transmitted rapidly.

At this moment, if information super highway is built, and the digitalized information of the advanced information country comes to us, we are to get easily information dependence unless we are ready.

Nowadays, our country is accepting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of the advanced information countries without filtering it properly. What is the reason? This means that we are lack of traditional knowledge resources as the foundation of digital system.

This paper deals with (1) the historical reason of the lackness of the traditional knowledge resources, (2) the aspect of the consumer culture about knowledge and information, and (3) the aspect of the production culture about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In order to overcome the information dependence, in this paper, we should

* Professor, Department of Library, Archive and Information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Library and Information Department, Changwon Junior College.

change both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our knowledge and information into a new pattern, establish the seed knowledge resources, and build libraries everywhere we can use easily. For this case study, this paper takes examples of maeul (which may mean traditional villiage in Korea) libraries in Changwon City.